라틴아메리카의 생성과 확장

담당 교수: 이재학

이베리아 반도의 역사(침략과 발전)

- 초기 이베리아 반도의 거주인들 - los iberos,
  los vascos

- 그리스인- Iberia, 로마인- Hispania > España

1. 기원전 1100년 - 켈트인(los celtas)들의 침입
   => los celtíberos

2. 기원전 237년- 카르타고의 침입
(하밀카르, 한니발,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, 제2차 포에니 전쟁)

Pax Romana

3. 기원전 218년-기원전 38년- 로마의 침입

   오현제 중 3명이 히스파니아 출신

   (트라야누스, 하드리아누스, 마르쿠스 아우렐리아누스)

4. 서기 409년- 반달족과 수에보족의 침입 ([V]andalucía)

5. 서기 429년- 서고트(los visigodos)인들의 침입

   (30만명의 서고트인과 700만명의 히스파니아인)

자료출처: 본인

자료출처: 본인

자료출처: 본인

자료출처: 본인

서고트왕국 및 이슬람의 침입

- 6세기- 자신들의 종교인 아리우스교 버리고 히스파니아 원주민들과의 결혼 허용

- 아리우스교- 신비주의
  => 스페인 가톨릭 신앙의 성적인 불안감 초래 (p. 55)

- 7세기- 서고트어 상실, 라틴 문화에 완전히 동화

6. 서기 711년- 모로인들의 침입

- Al-andaluz 왕국의 성립

동방 및 서방 교회의 대립

- **아타나시우스**

=> 서방교회 대변(콘스탄스 황제의 지원), 그의 암살(350년) 후 그의 형 콘스탄티우스 황제에 의해 탄압

=>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를 주축으로 동서교계를 일원화 하려 함

=> 예수의 인성만을 고집한 아리우스파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다며 공격, 신비주의 공격

=> 삼위일체설 확립

=> 로마가톨릭으로 확립

동방 및 서방 교회의 대립

- **아리우스**

  => 동방교회의 주축 (이집트 교권 등)

  => 하나님의 절대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의 신성 인정 안 함 (예수를 또 하나의 신으로 인정한다면 다신론 사유의 아류가 된다고 주장)

  => 예수의 인간됨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신비주의적 가능성 열어둠

  =>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신비주의는 예수가 신적인 권능으로써 인간의 죄악을 대속한다고 하는 구원론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기독교적인 독특한 유일신관의 기저를 파괴한다고 비판

  => 이단으로 몰림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자료출처: 본인

자료출처: 본인

가톨릭 왕국들의 성립 및 발전

- 718년- Asturias 왕국 성립:
  Pelayo(재위 718-737)를 왕으로 추대
- 720년- 프랑크 메로빙거 왕조의 궁재 카를 마르텔의
  이슬람세력 북진 저지
- 910년- Asturias-León 왕국 성립
- 그 외 반도의 동부에서 Navarra, Pamplona, Aragón, Cataluña 왕국 등 성립

가톨릭 왕국들의 성립 및 발전

- 1037년- Fernando I, León으로부터 독립하여 Castilla 왕국 성립 (스페인판 Wild West) (81쪽)
- 1085년- Alfonso 6세의 Toledo 정복
- 1089년- Rodrigo Ruy Diaz de Vivar (El Cid) Valencia 정복 (74-75쪽), caudillo (44쪽)
- 1236년 Córdoba 정복

자료출처: 스페인 국기

자료출처: 스페인 국기

국토회복 전쟁(La Reconquist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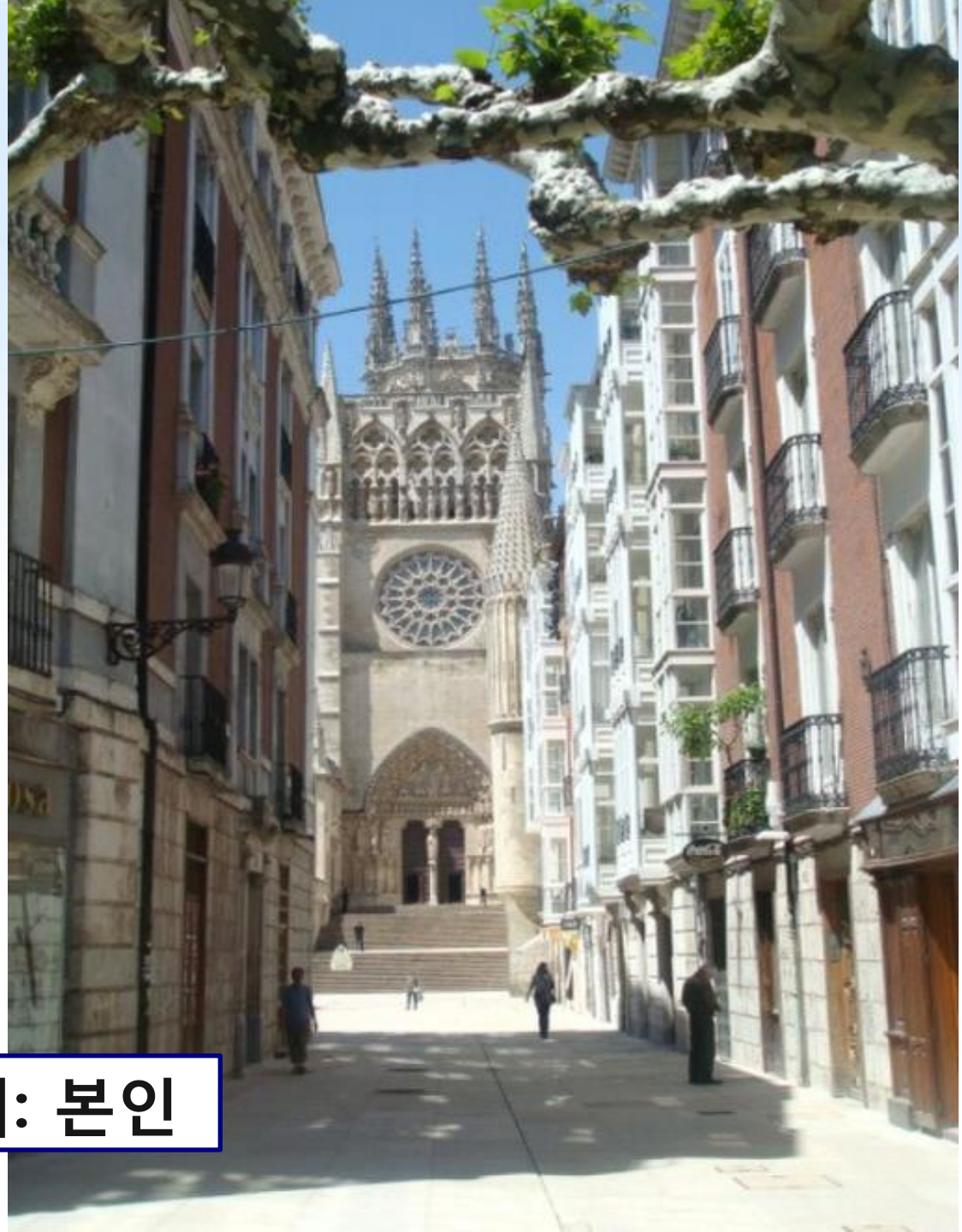
- 1238년 Valencia 재정복
- 1248년 Sevilla 정복
- 11-13세기에 Granada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토를 회복
- 14세기- 페스트 발생(봉건귀족 타격), 경제침체, 정치적 분열 및 내란 (봉건귀족과 국왕간의 다툼, pp.97-98)
- 14세기- Castilla, Aragón-Cataluña, Portugal, Granada 왕국으로 4분화됨

국토회복 전쟁(La Reconquista)

- 1462년- Aragón의 Fernando V(1474년 즉위)와 Castilla의 Isabel I 여왕(1479년 즉위), 혼인에 합의(1469년 혼인)
- 가톨릭 양왕(Los Reyes Católicos: 재위 1479-1516)에 의한 스페인 통치
- 1492년- La Reconquista, 콜럼버스(Cristobal Colón) 신대륙 발견

=> 결정적인 해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본인

가톨릭 양왕 혼인의 결과

- 결혼을 통해 중세 스페인의 모든 기독교 왕국 하나로 통합시킴
- 스페인의 지방봉건세력과 도시시민세력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었음
- 법과 질서의 통일
- 언어적 통일

  => 1492년 Atonio Nebrija 문법서 출간

  => El castellano ('까스띠야어') 스페인의 공식언어로 자리매김
- 신민들의 충성의 대상이 각 지방의 영주, caudillo에서 국왕으로 이전

  => 스페인 절대왕권의 시작
-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대립과 혼란 (caos)

이베리아 반도의 특성-
다원적 사회와 문화적 다원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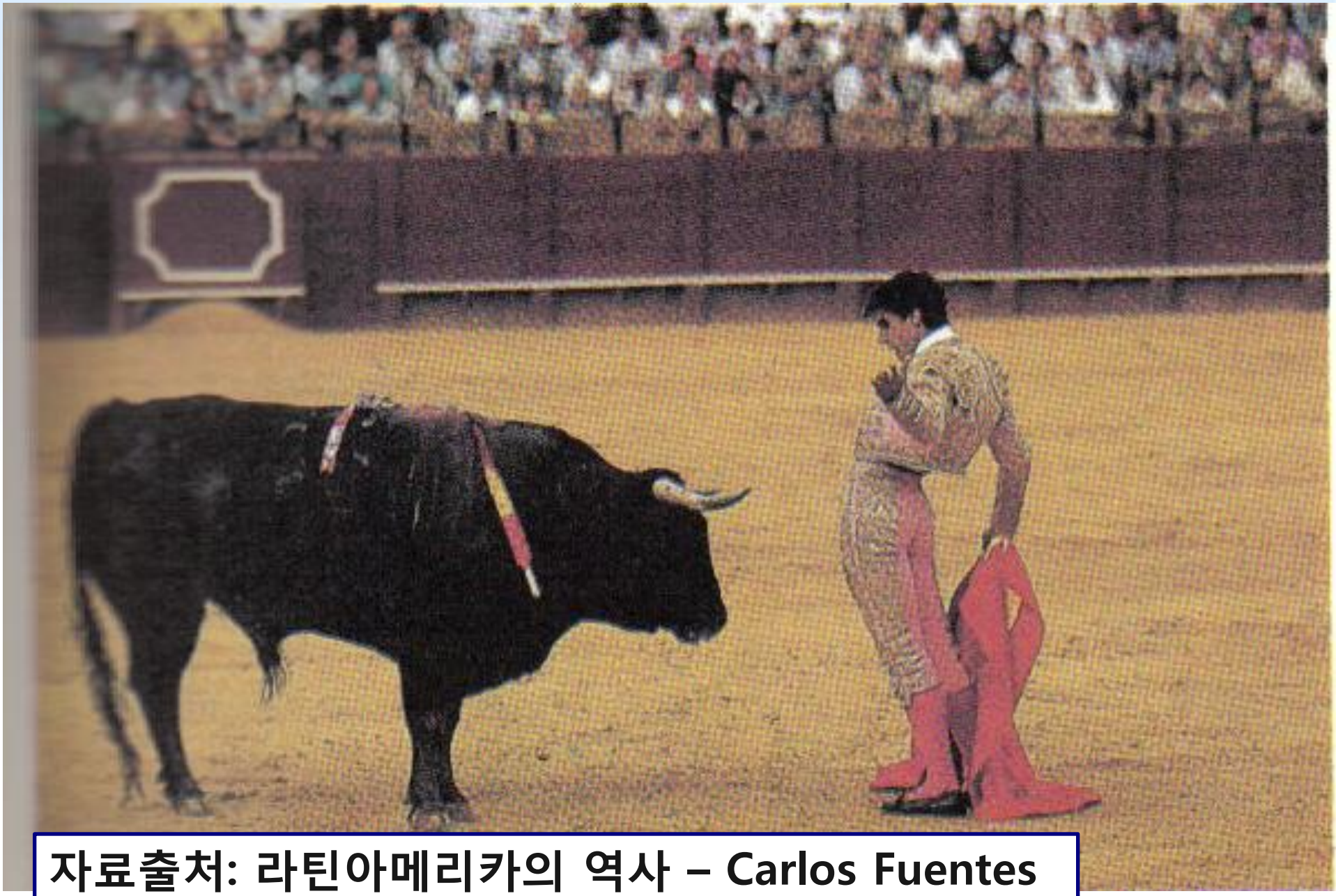
1. 태양(빛/그림자)
   =>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대변
2. 성모 마리아(聖/性)
   => 관능적이고 신비스러운 세비야의 부활절 행사(guapa)
   => 성스러움에 대한 갈망과 신앙에 의해 억압된 관능 의 표현
   => 스페인의 가톨릭 신앙은 성적인 불안감으로 각인(책 35, 55쪽)
3. 투우(삶/죽음)
   => 빛과 그림자의 미사
   =>빛과 그림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정체성의 문제
   =>[picador + banderillero + matador]

투우의 전개

1. El primer tercio (Picadores)
2. El segundo tercio (El suerte de banderilleros)
3. El tercio de muerte (El matador)
4. Estocada

=> la hora de la verdad

'the moment of truth'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히스패닉 세계의 이중성

4. 엘체의 귀부인 => 처녀 + 요부(순결/불순)

5. 스페인인의 얼굴 => "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"

6. 가톨릭교회(금욕/세속)
   => 스페인 형성의 이데올로기
   => 개인주의 + 금욕주의 +세속성(정치에의 개입):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끊임없는 정치에의 개입

7. 플라멩고(슬픔/환희) => cante jondo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자료출처: 본인

자료출처: 본인

자료출처: 본인

다원주의적 특성

8. 봉건귀족, 영주, caudillo의 권한 강화와 지역주의적 특성
   => 스페인,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한계
   (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허약한 민주주의의 기원, p.87)
9. 라틴아메리카 발견과 정복(현실/환상)
   => 로마제국 이래의 최대의 제국 형성
10. 로마 + 게르만문화(서고트왕국) + 기독교 문화 + 이슬람 문화 + 유대문화 + 인디오 문화(아스테카, 마야, 잉카, 칩차 등)
11. 이베리아 반도
   => 세계 유일의 3대 유일신 문화가 공존했던 곳
   (유대교, 가톨릭, 이슬람)

Carlos 1세의 통치

- 가톨릭 양왕 사후 딸 후아나(Juana la loca) 왕위 계승
  => 남편인 미남 펠리페(Felipe el Hermoso)의 바람기에 정신분열증세
  => 남편이 죽자 시체 매장 거부
  => 또르데시야스 성에 유폐
  => 그녀의 아들인 카를로스 1세(신성로마제국 카를 5세), 16세에 왕위 계승
  => 스페인어 구사 못함
  => 유럽의 군주로 군림, 세계 최대의 제국 건설 (독일, 네덜란드, 나폴리, 시칠리아 섬, 사르디니아 섬, 북아프리카, 남북아메리카, 필리핀, 괌, 사이판)
  => 세속적 권력과 기독교의 정신적 권력을 접목시키려 함
  => 사후 아들 펠리페 2세 왕위 계승 (무적함대 패배)

자료출처: 뮐베르크 전투에서의 카를로스 1세
(베첼리오 티치아노, 1548년)